

맞벌이부부의 여가시간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mount and Determinants of Leisure Time in the Dual-Earner Couples.

우석대학교 가정학과
전임강사 李昇美

Dep. of Home Economics Woosuk Univ.
Full Time Instructor : Seung-Mie, Lee

〈목 차〉

- | | |
|------------------|---------------|
| I. 문제 제기 | IV. 조사결과 및 분석 |
| II. 이론적 배경 | V. 요약 및 결론 |
|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examine ;

1) the difference of the amount between husband's and wife's leisure time in dual-earner household.

2) the relationship between leisure time of each spouse and selected demographic/socioeconomic measures and use of time in paid work and household work.

Empirical survey was conducted by using structured questionnaire and time-diary. The sample of this study were 98 dual-earner couples.

The major findings were that ;

1) the leisure time of husbands and wives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on weekday. But husbands had significantly more leisure time than wives on sunday : husband's mean minutes equal 444, while wife's mean minutes equal 350.

2) on weekday time spent in paid work and household work, leisure time of spouse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leisure time of both husband and wife. In addition, paid worktime of spouse was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leisure time of husband. On sunday household worktime, leisure time of spouse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leisure time of both husband and wife.

3) on weekday selected sociodemographic measures were not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leisure time of both husband and wife. On sunday degree of wife's education, husband's income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leisure time of wife, and age of younger child was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leisure time of husband.

I. 문제 제기

60년대 이래 생산제일주의를 지향하는 경제개발 계획과 이에 따른 급격한 산업자본주의의 발전으로 인해 오늘날 우리사회는 상당한 풍요를 경험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2000년대를 바라보는 현시점에 이르러서는 성장 우선에서 벗어나 지금까지 외면되어 오던 삶의 다양한 측면에 관해 서서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총체적인 삶의 질 향상을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다양한 정책의 전환을 시도하고자 하는 정부의 입장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러한 국가정책의 전환과 더불어 사람들의 노동관, 즉 '일요기피현상'과 여가선호현상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와 맥을 같이하여 토요일휴무제의 확대, 조기출퇴근제의 실시 등과 같은 근로시간의 단축을 통한 여가시간의 증가, 그리고 날로 번창하는 레저산업, 외식산업의 발전 등과 같은 사회환경의 변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삶의 질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여가는 점점 더 중요한 연구대상이 되고 있으며, 여가의 상당부분이 가정내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가정학분야에서도 많은 연구의 주제가 되고 있다.

여가에 관해 Linder(1970)는 사회적 풍요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부족하게 되어 고생하는 "약탈당한 여가계급(harried leisure class)"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풍요와 여가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즉 증가된 풍요는 소비의 확대를 초래하며, 이는 소비자에게 재화를 획득하고 유지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게 된다. 또한 높아진 소득은 정보, 그리고 의사결정을 위한 시간을 더 많이 요구하게 됨에 따라 '서비스경제에서 서비스의 감소'를, 그리고 '비합리성을 위한 합리성'을 조장한다고 주장하고 있다(Nickols & Abdel-Ghany, 1983;189 재인용). 따라서 여가문제에

관한 많은 관심은 소득과 여가간의 관계로서, 이는 가정경제학자들의 주된 관심의 대상이다. 이들에 의하면 증가된 임금(또는 비근로소득의 증가)은 더 많은 여가-소득효과-를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여가를 훨씬 더 비싼 것으로 만들어서 여가 대신 노동을 선택하게-대체효과-할 수 있다는 것이며, 이 중 어느 효과가 더 큰가를 밝히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여가는 이러한 개인의 선택문제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맥락에서 탐구되어지기도 한다. 즉 가정자원관리이론에서는 가족을 총체적인 체계로 파악하여 자원배분의 문제를 개인의 선택 뿐만 아니라 가족원간의 상호작용-배우자 한사람의 시간 배분방식은 다른 배우자의 시간사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의 영향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현대사회에서는 가족이 특히 중요한 여가 집단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부부관계의 일부로 여가시간을 공유하고자 하는 기대는 동반자적 부부관계를 지향하는 최근의 추세와 아울러 공유여가시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여가의 배분 문제가 개인의 선택문제만으로 국한되지 않음을 보여 준다. 이와 함께 시간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루 24시간 동일하게 주어질 뿐만 아니라 축적될 수 없는 자원의 특성을 지니므로 시간자원의 제약성, 그리고 구속적인 성격의 시간량--예를 들면 수입노동시간이나 가사노동시간--역시 상대적으로 탄력성이 큰 여가시간의 배분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요인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여 여가시간의 배분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주부 개인의 여가문제만을 다루어 온 앞서의 가정학분야에서의 여가연구(김의숙, 1991; 이기영 외 2인, 1995; 장윤희, 1991; 한경미와 황덕순, 1990; 홍성희, 1991; 홍성희, 1996)와 달리 맞벌이가정의 부부를 대상으로

여가시간의 배분양상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을 밝히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여가의 개념과 여가활동유형

여가의 개념과 여가활동유형은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여가를 활동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다. 즉 여가에 대한 활동개념이란 여가를 노동, 가족, 사회의 의무로부터 해방되어 휴식이나 오락을 위하여, 또는 지식, 자발적 사회참여, 창조적 능력의 자유로운 실현을 위하여 스스로 참여하는 활동으로 보는 것이다(김의숙, 1991:9).

이러한 개념을 토대로 한 여가활동의 유형은 참여빈도, 개념적 분류법, 욕구충족적 특성에 의해 구분될 수 있다(김의숙 등, 1992). 이 중 참여빈도에 따라 여가활동을 유형화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김의숙(1991), 장윤희(1991)의 연구에서는 자기개발활동, 가정지향활동, 종교/사회참여활동, 사교활동, 소일활동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홍성희(1991)의 연구에서는

1990;이기영 외 2인, 1995), 개인적/가족적/사회적-지역적 활동(伊藤 등, 1989:74), 개별활동/parallel활동/joint활동(orthner,1974;안동선,1982;이기영 외 2인, 1995:115에서 재인용)으로 구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생활시간 배분적 관점에서 시간을 노동시간과 노동력 재생산시간으로 이분하고, 노동력 재생산시간을 다시 생리적 시간, 가사노동시간, 사회문화적 시간으로 3분하는 선행연구(伊藤 등, 1989;이기영 외 3인, 1994;이기영과 이승미, 1994)를 토대로 노동력의 사회적/문화적 측면에서의 재생산시간을 여가시간으로 개념 규정하고자 한다. 따라서 24시간의 시간일지표에 나타난 여러활동 중 사회문화적, 즉 여가 활동으로 분류할 수 있는 활동을 개념적 분류법에 의해 결정한 후 이러한 활동에 사용된 시간의 총량을 여가시간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남편의 장시간노동과 취업주부의 이중부담이라는 시간적 제약하에서 남녀간의 여가시간 배분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여가활동을 그 내용에 따라 교양/연수, 독서, 신문, TV/라디오, 가족단란, 취미, 운동/산책, 오락, 교제, 사회활동, 종교활동으로 세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표 1〉 취업주부와 남편의 여가시간 배분경향

연구자 연도	한국방송공사 1990*	한경미 1991*	홍성희 1993	이기영 외3인 1994*	Robinson 1977*	Nickols의 1983	伊藤의 8인 1989*
취업주부	117 201	103 349	232	139 389	192 492	220	105 304
남편				157 532	228 498	255	115 448

* 평일과 휴일의 여가시간으로 구분됨

- 1) 홍성희(1993)의 연구결과는 평일과 휴일의 평균값이며, Nickols등(1983)의 연구는 이틀간 여가시간의 평균을 나타냄.
- 2) 한국방송공사의 연구결과는 이현아(1994)에서 재인용하였고, 여기서의 남편은 성인남자를 의미함.
- 3) 이기영 외 3인(1994)의 연구결과는 자녀가 있는 맞벌이가정의 경우임.

자기개발적, 가정지향적, 시간소일적, 사교적, 자녀중심적 활동으로 여가활동을 구분하고 있다. 또한 조사대상자나 연구자가 여가활동의 성격을 판단하는데 내재한 인식의 차원에 근거를 두고 활동을 분류하는 방법인 개념적 분류법에 의하면 적극적/소극적 여가활동(Firestone & Shelton, 1988;한경미와 황덕순,

2. 맞벌이가정 부부의 여가시간 배분경향

맞벌이가정의 부부를 대상으로 여가시간을 조사한 국내연구는 지금까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취업주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나 남성의 여가에 대한 국내의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취업주부와 남편의 여가시간 배분양상은 조사대상¹⁾, 조사시기, 그리고 여가활동에 포함된 내용의 상이성²⁾ 등에 의해 연구자마다 다른 결과를 보이지만, 남편과 부인을 비교해 볼 때 남편의 여가시간이 부인보다 많으며, 이러한 차이는 평일보다 휴일에 더 큰 편이다.

한편 기혼 남녀간의 여가시간 배분경향을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기혼 남녀를 대상으로 한 Robinson(1977:96-111)의 연구결과, 남성은 대중매체와 성인교육의 중요한 소비자이며, 운동과 옥외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반면, 여성은 오락, 대화, 휴식, 뜨개질과 같은 가정중심적 활동, 그리고 종교활동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시간을 배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인의 취업형태에 따라 부부의 시간사용을 연구한 결과(伊藤 외 8인, 1989:32-33)에 의하면 맞벌이가정의 경우 신문, 취미, 오락영역(평일의 경우)에서, 이와 함께 휴일에는 TV/라디오영역에서 남편이 더 많은 시간을 배분하는데 반해, 부인은 가족단란, 교제, 종교활동영역에 더 많은 시간을 배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맞벌이가정 부부의 여가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부부의 여가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시간관련 요인, 사회인구학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시간관련 요인

시간은 모든 개인에게 하루 24시간이라는 동일한 양이 주어지며, 한가지 활동에 배분된 시간은 다른 활동에 사용될 수 없는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시간의 제약개념은 시간배분을 다루는 모든 분석에서 기본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점이다(Hill & Juster, 1993). 따라서 맞벌이가정 부부의 경우 시간배분에 있어 가장 우선적이고 구속적인 특성을 지니는 수입노동시간이 자신의 여가시간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많은 선행연구(한경미, 1991; 이현아, 1994; Nickols & Abdel-Ghany, 1983; Firestone & Shelton, 1988)에서도 노동시간이 길수록 여가시간이 적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정자원관리이론에서는 가족을 하나의 체계로 파악하여 가족원간에 자원사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이것이 가족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 1) 연구의 조사대상을 살펴보면 한경미(1991)의 경우 서울시와 광주시에 거주하며, 첫자녀의 연령이 18세이하던 공식직직종에 취업한 주부를 대상으로 하였다. 홍성희(1993)의 경우는 서울시와 대구시에 거주하고 1명 이상의 자녀를 둔 주부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그 중 취업주부는 조사대상자의 33%를 차지하고 있다. 이기영 외 3인(1994)의 경우는 수도권에 거주하고 남편이 직업이 있는 유자녀부부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는데, 그 중 취업주부는 전일제와 시간제취업이 경우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Robinson(1977:90)의 경우는 18-65세의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시간조사를 하였는데, <표 1>에 제시된 여가시간은 대상을 취업한 여성, 취업한 남성, 주부로 구분하여 영역별 시간량을 그림으로 제시한 결과를 참고로 하였다. Nickols & Abdel-Ghany(1983)의 연구는 "An Interstate Urban/Rural Comparison of Families' Time Use"의 자료 중 남편과 부인 모두 취업한 도시/농촌의 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伊藤 외 8인(1989)의 연구는 타마시에 거주하고 자녀가 있는 고용노동자세대의 부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남편은 고용노동자, 부인은 전일제취업, 시간제취업, 전업주부로 구분하여 대상을 유형화하였다.
- 2) 각 연구의 여가활동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한국방송공사(1990)의 경우 교제/휴양/ 레저활동/신문, 책/라디오/텔레비전으로 여가행동을 구분하고 있으며, 한경미(1991)의 연구에서는 TV, 라디오, 음악감상/신문, 잡지, 책/대화/휴식, 낮잠/창작, 공예/스포츠/관람, 구경/사교모임, 여행/승부놀이/종교활동 및 기타를 여가활동으로 포함하고 있다. 홍성희(1993)의 연구에서는 평일과 휴일의 하루 24시간을 수면, 가사노동, 여가, 취업의 4개 항목으로 분류한 개방형 질문을 통해 여가시간을 파악하였다. Robinson(1977)의 연구에서는 여가를 위한 이동시간/학습/종교/조직/라디오/TV/신문/잡지/책/영화/사회적 활동/대화/능동적 스포츠/outdoors/오락/문화활동/휴식/기타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있다. Nickols 등(1983)의 연구에서는 여가시간을 사회적/재충전적 활동에 쓴 시간으로 정의하였고, 종교적/학교/지역사회집단에서의 참여는 조직참여로 분류하여 여가에서 제외하였다. 伊藤 외 8인(1989)의 연구에서의 여가활동은 본 연구의 분류와 동일하다.

관해 총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Deacon & Firebaugh, 1988). 이러한 관점에 의하면 맞벌이가정 부부의 경우 자신의 노동시간은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생활시간, 그 중에서도 여가시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지며, 이는 남편의 장시간노동이 가정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이현아, 1994)에서 본인의 여가시간이나 자녀와의 접촉, 가족단위의 부족을 심각한 문제로 지적한 결과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한편 가사노동의 일차적 책임을 갖고 있는 주부의 경우 가사노동시간이 여가시간에 부적 영향을 미치며(Firestone & Shelton, 1988), 이러한 영향은 취업 주부에게도 마찬가지여서 가사노동시간이 길수록 본인의 여가시간은 짧아진다(Nickols & Abdel-Ghany, 1983). 또한 배우자의 가사노동시간이 여가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추측하면, 배우자의 가사노동시간의 증가는 본인의 가사노동량을 줄여주므로 여가시간에는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선행연구(Nickols & Abdel-Ghany, 1983)에 의하면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이 부인의 여가시간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이 유의하지는 않지만 부적된 것으로 나타나 남편의 가사노동에의 참여는 부인의 가사노동시간을 대체하기보다는 오히려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견해도 있으므로 이를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남편과 부인의 여가시간은 배우자의 여가시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이는 가족이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여가집단으로 기능할 뿐만 아니라 배우자에 대한 상호간의 역할기대-재충전을 위한 역할에 의해 부부관계의 일부로서 여가시간을 공유하려는 요구가 생긴다는 점에 근거를 두고 있다. 따라서 남편과 부인의 여가시간의 증가는 배우자의 여가시간을 증가시키는 정적인 관계를 보인다(Nickols & Abdel-Ghany, 1983; Hill & Juster, 1980).

(2) 사회인구학적 요인

자녀의 존재는 끊임없이 부모의 보살핌을 필요로 하며, 자녀의 연령이 낮을수록 보살핌에 대한 요구는 더 커진다. 따라서 막내자녀의 연령이 낮을수록

가사노동시간은 길어지며, 이는 이용가능한 여가시간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또한 이러한 영향정도는 남편보다 자녀양육의 일차적 책임을 맡고 있는 주부에게 있어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한경미, 1991; Nickols & Abdel-ghany, 1983; Firestone & Shelton, 1988). 따라서 자녀가 있고, 막내자녀의 연령이 낮을수록 남편과 부인의 여가시간은 감소할 것이다.

여가시간 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요인으로 소득을 들 수 있다. 소득이 시간배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대부분은 경제학자와 가정경제학자에 의해서이다. 이들의 관점에 의하면 가정은 효용 극대화를 위한 하나의 생산단위이며, 가족원 각각 특히 남편과 부인은 자신의 생산성에 근거하여 가족의 총효용을 극대화시키는 방식으로 시간을 배분한다는 것이다(Gronau, 1976; Hiatt & Godwin, 1990). 그리고 남편과 부인의 소득을 자신의 생산성의 지표로 이용하여 시간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대표적인 연구인 Gronau(1976)의 연구에 의하면 미국의 경우 소득 변화의 효과는 남편과 부인에게 다르게 적용된다. 즉 부인의 임금을 증가는 자신의 노동을 증가시키고 가사노동과 여가는 감소시키는데 반해, 남편의 시장노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남편의 가사노동에는 정적 영향을, 그리고 결과적으로 남편의 여가와는 부적 관계를 갖는다. 남편의 임금을의 증가는 자신의 시장노동시간을 증가시키며, 부인의 시장노동은 감소시키는 반면 부인의 가사노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부인의 여가를 증가시킨다. 자신의 임금율과 여가시간과의 관계를 분석한 Nickols과 Abdel-Ghany(1983)의 연구에서는 임금율이 높은 남편의 여가시간이 더 많은데 비해 임금율이 높은 부인은 여가시간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연령이 여가시간에 미치는 영향은 연령별에 따른 노동관과 여가관의 변화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선행연구(김문겸, 1993:161-166)에 의하면 아직까지 여가생활을 누리기에는 이르다고 생각하는 사

람이 40, 50대에 가장 많은 반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일요노동 기피'와 여가선호현상은 연령에 따른 여가관의 차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연령이 낮을수록 여가시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주부는 남편과 가정내 역할의 책임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여가관의 변화를 반영하는 연령의 영향력이 남편과 다를 것으로 여겨진다. 선행연구에서도 연령이 주부의 여가시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Firestone & Shelton, 1988)가 있는 반면, 한경미의 연구(1990)에서는 주부의 연령과 여가시간이 정적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 상이한 결과를 보여준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여가시간, 특히 적극적 여가시간이 많은 것으로(한경미, 1991) 나타났는데, 이는 교육수준에 따라 여가의 개념이 다르다는 선행연구, 즉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여가를 '창조적 활동이나 재생산 의욕을 고취시키는 것' 또는 '기분전환을 위한 것'으로 응답한 비율이 높다는 결과(김문경, 1993; 157)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Ⅲ.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맞벌이부부의 여가시간 실태와 부부간의 차이, 여가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1) 맞벌이가정 부부의 전체 여가시간, 세부영역별 여가시간은 남편과 부인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시간관련 요인, 사회인구학적 요인이 맞벌이가정의 남편, 부인의 전체 여가시간에 미치는 독립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2.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에서는 '도시근로자가정 부부의 생활시간 구조에 관한 연구'(이기영 외 3인, 1994)에서 사용된

조사도구와 자료를 이용하였다. 조사도구는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구조화된 설문지와 하루 24시간을 10분단위로 나누어 구성한 시간일지표(time diary)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조사를 통해 회수된 330쌍 중에서 유자녀의 맞벌이가정에 해당하는 98쌍이었고, 남편과 부인의 여가시간을 평일과 일요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전체 여가시간 및 세부 영역별 여가시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쌍체 t 검증을 이용하였고, 시간관련 요인, 사회인구학적 요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중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모든 통계처리는 SPSS PC+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에 서와 같이 30대의 맞벌이 가정이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교육수준의 경우 대졸이상인 남편이 전체의 67%이며, 부인의 경우는 대졸이상이 49%를 차지하고 있어 교육수준이 높은 편이다. 남편과 부인의 직업유형 모두 사무기술직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전문관리직/자영업자가 비슷한 수준이고, 생산서비스직이 매우 적은 편이다. 소득의 경우 남편은 100-159만원정도가 가장 많은데 비해, 부인은 60-99만원이하의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수는 2명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자녀가 1명인 경우가 전체의 38%를 차지하였다.

Ⅳ. 조사결과 및 분석

1. 맞벌이가정 부부의 여가시간 배분

(1) 맞벌이가정 부부의 여가시간 차이

맞벌이가정 부부의 여가시간을 평일, 일요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먼저 평일의 경우 남편의 여가시간이 153분(2시간 33분)으로 부인의 여가시간인 140분(2시간 20분)보다 다소 많은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 인	구 분	빈 도 (%)	변 인	구 분	빈 도 (%)
남편의 연 령	29세 이하	10 (10)	부인의 연 령	29세 이하	19 (20)
	30-39세	55 (57)		30-39세	55 (57)
	40-49세	22 (23)		40-49세	19 (20)
	50세 이상	10 (10)		50세 이상	3 (3)
	계	97 (100)		계	96 (100)
남편의 교육수준	고졸 이하	26 (27)	부인의 교육수준	고졸 이하	38 (39)
	초급대졸	6 (6)		초급대졸	12 (12)
	대졸 이상	66 (67)		대졸 이상	48 (49)
	계	98 (100)		계	98 (100)
남편의 직업유형	전문관리직	16 (17)	부인의 직업유형	전문관리직	19 (20)
	사무기술직	56 (58)		사무기술직	40 (41)
	자영업자	16 (17)		자영업자	20 (21)
	생산서비스직	4 (4)		생산서비스직	10 (10)
	기 타	4 (4)		기 타	8 (8)
계	98 (100)	계	98 (100)		
남편의 소 득	59만원 이하	5 (5)	부인의 소 득	59만원 이하	33 (34)
	60-99만원	23 (25)		60-99만원	32 (33)
	100-159만원	41 (43)		100-159만원	17 (18)
	160만원 이상	25 (27)		160만원 이상	15 (15)
	계	94 (100)		계	97(100)
자녀수	1명	37 (38)			
	2명	54 (55)			
	3명 이상	7 (7)			
	계	98 (100)			

편이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우리나라 남편의 수입노동시간이 부인의 취업에 따른 이중부담만큼이나 긴시간을 요구³⁾함에 따른 시간의 제약성에 의한 것으로 여겨진다. 일요일의 경우 남편의 여가시간이 444분(7시간 24분)으로 부인의 여가시간인 350분(5시간 50분)보다 많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와 같이 평일과 다른 결과를 보이는 것은 주부의 가사노동에 의한 것으로 취업주부의 이중부담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2) 맞벌이가정 부부의 세부 영역별 여가시간 차이

맞벌이가정 부부의 여가시간을 세부 영역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먼저 평일의 경우 전체 여가시간과는 달리 신문, 오락의 영역에서 남편이 부인보다 유의하게 여가시간이 많은데 반해, 가족단란의 시간은 남편보다 부인의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요일의 경우에는 독서, 신문, TV/라디오, 교제의 영역에서 남편이 부인보다 여가시간이 많은데 비해, 종교활동의 영역은 부인이 남

3) 회사를 대상으로 한 김효선(1987)의 연구에 의하면 일일 평균근무시간이 10시간 이상인 경우가 전체의 62%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이현아,1994, 재인용), 수도권에 거주하는 유자녀가정을 대상으로 한 이기영 외 3인(1994)의 연구에서는 취업주부 남편의 평일 수입노동시간이 11시간 15분으로 나타나 취업주부의 총노동시간(수입노동시간+가사노동시간)인 11시간 48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제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적 영역보다 공적영

〈표 3〉 맞벌이부부의 여가시간 차이

(N=98쌍)

구 분	평일의 여가시간			일요일의 여가시간		
	부 인	남 편	쌍체 t값	부 인	남 편	쌍체 t값
전체 여가시간	140분	153분	-1.00	350분	444분	-4.14 ***
교양/연수	14분	11분	.57	8분	11분	-.46
독 서	12분	14분	-.58	15분	34분	-2.54 *
신 문	5분	14분	-4.53 ***	5분	16분	-4.49 ***
TV/라디오	59분	58분	.21	108분	142분	-2.47 *
가족 단란	16분	10분	1.94 +	30분	35분	-.86
취 미	2분	3분	-.24	17분	12분	.97
운동/산책	7분	12분	-1.10	21분	30분	-1.18
오 락	1분	6분	-1.83 +	11분	17분	-1.45
교 제	13분	21분	-1.05	48분	74분	-2.02 *
사회 활동	1분	0분	1.00	3분	6분	-1.00
종교 활동	6분	2분	1.27	51분	31분	2.08 *

*** : p<.001, ** : p<.01, * : p<.05, + : p<.1

신문, 독서, TV/라디오 영역에서 남녀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대중매체의 중요한 소비자는 남성이라는 점, 이에 비해 여성은 남성보다 종교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배분한다는 점은 앞서의 선행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또한 남편이 부인보다 신문과 독서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순수한 지식탐구나 자아충족을 위해서라기 보다는 자신의 직업적 성취와 관련된 정보획득을 위하여, 그리고 사회적 관심에 대한 남녀간의 차이 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평일의 여가시간 중 가족단란과 오락영역에서의 남녀간 차이는 자녀양육 및 가정에 대해 일차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 여성에 비해, 이러한 책임으로부터 다소 자유로운 남성의 역할 차이에 의한 것으로서, 남녀간의 성별 분업현상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일요일의 교제시간에서 남녀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은 가정과 취업이라는 이중부담에 의해 시간적 제약을 지닌 취업주부에 비해 남성은 개인적 관계를 위한 시간투자가 훨씬 더 많으며, 이러한 교제의 상당 부분이 일과 관련된 사람과의

역에 더 깊숙히 매몰되어 있는 남성문화의 한 단면을 반영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2. 맞벌이가정 부부의 여가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맞벌이가정 부부의 여가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데 있어, 앞서 설정된 시간관련 요인은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배분하는가의 문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요인이지만, 이를 사회인구학적 요인과 함께 분석할 경우 시간관련 요인의 상대적 중요성에 의해 사회인구학적 요인의 영향이 잠식당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시간관련 요인과 사회인구학적 요인을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1) 시간관련 요인

맞벌이가정 부부의 여가시간에 시간관련 요인이 미치는 영향을 중회귀분석⁹⁾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먼저 평일의 경우 부인은 자신의 수입노동시간, 자신의 가사노동시간, 배우자의 여가시간이 유의한

〈표 4〉 맞벌이부부의 여가시간에 대한 시간관련 요인의 중회귀분석

독립 변수	평일의 여가시간				일요일의 여가시간			
	부인		남편		부인		남편	
	Beta	b	Beta	b	Beta	b	Beta	b
자신의 수입노동시간	-.88	-0.597***	-.81	-0.663***				
배우자의 수입노동시간	.20	0.164	.27	0.185*				
자신의 가사노동시간	-.55	-0.527***	-.29	-0.993***	-.51	-0.643***	-.65	-0.779***
배우자의 가사노동시간	-.04	-0.141	.12	0.119	-.10	-0.099	.07	0.100
배우자의 여가시간	.26	0.257*	.20	0.198*	.20	0.171+	.17	0.207+
adjusted R ² 값	.46		.59		.40		.49	
F 값	17.87***		29.31***		21.98***		31.55***	

*** p < .001 ** p < .01 *p < .05 +p < .1

〈표 5〉 맞벌이부부의 여가시간에 대한 사회인구학적 요인의 중회귀분석

독립 변수	평일의 여가시간				일요일의 여가시간			
	부인		남편		부인		남편	
	Beta	b	Beta	b	Beta	b	Beta	b
막내자녀의 연령	-.09	-0.164	.20	.20	-.06	-0.053	-.36	-0.358*
연령	.17	0.264	.05	.05	.08	0.093	.17	0.319
교육 수준	.00	0.019	.02	.02	.29	1.420*	.11	0.628
남편의 소득	.07	0.009	.13	.13	.22	0.049+	.16	0.044
부인의 소득	-.10	-0.015	.09	0.013	.08	0.021	0.7	0.021
adjusted R ² 값	-.04		.07		.19		.23	
F 값	.29		.34*		5.09***		6.13***	

*** p < .001 ** p < .01 *p < .05 +p < .1

반면, 남편은 배우자의 가사노동시간을 제외한 모든 요인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맞벌이가정 부부의 평일의 여가시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은 남편과 부인 모두 자신의 수입노동시간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부인의 경우 자신의 가사노동시간($\beta = -.55$), 배우자의 여가시간($\beta = .26$)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남편의 경우 자신의 가사노동시간($\beta = -.29$), 배우자의 수입노동시간($\beta = .27$), 배우자의 여가시간($\beta = .20$)의 순으로 나타났다.

일요일의 경우는 남편과 부인 모두 자신의 가사노동시간이 자신의 여가시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이며, 다음으로 배우자의 여가시간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앞서의 유의한 영향요인이 남편과 부인의 여가시간에 미치는 효과의 방향을 살펴보면 자신의 수입노동시간이 10분 길어질수록 부인의 여가시간은 5.97분씩, 남편의 여가시간은 6.63분씩 짧아지며, 자신의 가사노동시간 역시 10분 길어질수록 부인의 경우 5.27분씩(평일), 6.43분씩(일요일), 그리고 남편의 경우 9.93분씩(평일), 7.79분씩(일요일) 짧아져서 부적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의 결과와 함께 구속적 성격이 강한 두가지 시간,

4) 변인간의 상관관계는 부록의 〈표5〉, 〈표6〉 참조.

즉 수입노동시간, 가사노동시간이 비교적 탄력적인 여가시간을 가장 많이 제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배우자의 여가시간이 길수록 남편, 부인 각각의 여가시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배우자간의 여가시간은 상호간에 보완적인 성격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부부관계의 일부로서 부부가 여가를 공유하고자 하며, 가족이 가장 중요한 여가집단이라는 앞서의 견해를 뒷받침해 준다. 부인의 수입노동시간이 10분 길어질수록 남편의 여가시간이 1.85분씩 길어지는데 반해, 남편의 수입노동시간은 부인의 여가시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배우자의 시간사용방식이 다른 배우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남녀간에 서로 다를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를 보다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시간배분간의 관계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한편 한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배우자의 가사노동시간과 부인의 여가시간간의 관계인데, 유의하지는 않지만 선행연구(Nickols & Abdel-Ghany, 1983)와 같이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이 길수록 부인의 여가시간이 짧아져서 부적 관계를 보인다는 점이다. 이는 남편의 더 많은 가사노동의 참여가 부인의 가사노동시간을 대체하기 보다는 오히려 증가시키는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남편의 가사노동은 부인과 함께 이루어지는 공유가사노동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사회인구학적 요인

사회인구학적 요인이 맞벌이부부의 여가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먼저 평일의 경우 부인과 남편 모두 사회인구학적 요인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편의 회귀방정식만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사회인구학적 요인이 평일의 여가시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적음을 알 수 있다.

일요일의 경우 부인과 남편의 여가시간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부인의 경우 본인의 교육수준($\beta=.29$)이 가장 중요한 영향요인이었고, 다음으로 남편의 소득($\beta=.22$)

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편의 경우는 막내 자녀의 연령($\beta=-.36$)만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유의한 영향요인이 남편과 부인의 여가시간에 미치는 효과의 방향을 살펴보면 부인의 경우 교육수준이 1년 더 길수록 부인의 여가시간은 14.20분씩 길어지며, 남편의 소득이 한단위(만원) 더 많을수록 0.49분씩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부인의 교육수준, 남편의 소득이 부인의 여가시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특히 남편의 소득과 부인의 여가시간이 정적인 관계를 갖는 것은 남편의 소득이 부인에게 비근로소득으로 작용하여 부인이 시장노동이나 가사노동보다는 정상적인 여가에 더 많은 시간을 배분하도록 하는 소득효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평일과 달리 일요일의 경우 부인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부인의 여가시간이 증가한다는 것은 구속성이 큰 수입노동의 부담에서 벗어나 시간사용에 보다 탄력적일 수 있는 여건하에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여가를 보다 적극적인 의미-창조적 활동이나 재생산 의욕의 고취, 혹은 기분전환을 위한 것으로 생각하는 여가관에 의한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남편의 일요일의 여가시간은 막내자녀의 연령이 많을수록 여가시간이 3.58분씩 짧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막내자녀의 연령이 부인의 여가시간에만 유의하며, 막내자녀의 연령이 많아질수록 가사노동의 부담에서 벗어나 부인의 여가시간이 증가한다는 선행연구(Nickols & Abdel-ghany, 1983)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어 이를 규명하기 위한 분석이 앞으로의 연구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기혼여성의 취업으로 많은 연구의 초점이 되고 있는 맞벌이가정의 부부를 대상으로 남편과 부인의 여가시간 배분양상과 여가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수도권에 거주하는 98쌍의 유자녀 맞벌이가정을 대상으로 부부 각각의 여가시간과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맞벌이가정 부부의 여가시간은 평일의 경우 남편의 여가시간이 153분, 부인의 여가시간이 140분이었으며, 휴일의 경우 남편의 여가시간이 444분, 부인의 여가시간이 350분으로 나타났다. 평일의 여가시간이 부부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은 취업주부의 이중부담만큼이나 긴 남편의 장시간노동에 의한 것으로 여겨지며, 이에 비해 휴일의 여가시간 경우 부부간에 94분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가사노동의 일차적 책임을 맡고 있는 취업주부의 이중부담이 여가시간을 제약하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세부 영역별 여가시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평일의 경우 신문, 오락의 영역에서 남편이 부인보다 유의하게 많은데 반해, 가족단란 시간은 부인이 남편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요일의 경우 독서, 신문, TV/라디오, 교제의 영역에서 남편의 여가시간이 부인보다 유의하게 많은데 비해, 종교활동시간은 부인이 남편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남편의 경우는 장시간노동으로, 부인의 경우에는 취업에 따른 이중부담으로 인해 거의 유사한 시간적 제약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부 영역에 있어 차이를 보이는 것은 남녀간의 역할에 작용하는 성별분업 이데올로기, 이에 의한 가정에 대한 남녀간의 상이한 책임감 정도, 그리고 남녀간의 생활배경이나 관심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맞벌이가정 부부의 여가시간에 시간관련 요인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자신의 수입노동시간, 자신의 가사노동시간이 남편과 부인 각자의 여가시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배우자의 여가시간이 본인 각자의 여가시간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부인의 수입노동시간은 남편의 여가시간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시간의 제약성이라는 특성하에 구속성이 큰 생활시간영역(수입노동, 가사노동)이 비교적 탄력적인 여가시간 배분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배우자의 시간사용 방식이 남편과 부인 각자의 여가시간 배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가족을 하나의 통합된 체계로 파악하여 가족내의 자원사용방식을 분석하는 것이

매우 유용함을 알 수 있다. 그 뿐 아니라 배우자의 여가시간이 남편과 부인의 여가시간과 정적 관계라는 점은 가족이 중요한 여가집단의 기능을 하며, 부부관계의 일부로 여가를 공유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넷째, 사회인구학적 요인이 맞벌이부부의 여가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평일의 경우 남편과 부인 모두 유의한 영향요인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인구학적 요인이 평일의 여가시간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이는 하루 24시간이라는 제한된 시간속에서 구속적인 수입노동이나 가사노동에 대해 선차적으로 시간 배분이 이루어짐에 따라 이에 의한 영향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 평일의 특성에 의한 것으로 여겨진다.

일요일의 경우는 부인의 교육수준과 남편의 소득이 부인의 여가시간에 정적인 영향을, 막내자녀의 연령이 남편의 여가시간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편의 소득과 부인의 여가시간이 정적인 관계를 보이는 것은 소득효과에 의한 것으로서, 이는 신고전경제학적 관점을 어느정도 지지해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맞벌이가정 부부의 여가시간 배분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제시된 다양한 관점들이 정도의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여가시간 배분문제를 규명하는데 유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부부 각자를 개별적인 한 개인으로 분석하는 것 보다 가족이라는 하나의 체계로 파악하여 통합된 관점으로 분석하는 것이 매우 유용하다는 결과는 시간배분의 문제를 경제학적 관점에서 분석하고자하는 많은 현재의 노력들이 매우 제한적인 설명에 국한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며, 다양한 관점에서 가족의 시간배분 문제를 분석하는 것이 훨씬 더 현상을 잘 규명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여겨진다.

한편 배우자의 여가시간이 남편과 부인 각자의 여가시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 부부간의 공유여가시간이 많을수록 결혼만족도 혹은 안정성이 높다는 선행연구(이기영 외 2인, 1995; Orthner, D.K., 1975; Hill, M.S., 1988)의 결과를 통해 볼 때, 사회변화와 더불어 이혼의 비율이 점점 더 늘고 있는 현시

점에서 부부간의 여가공유는 가족의 안정성에 보다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맞벌이가정 부부의 여가시간은 각자의 수입노동시간과 가사노동시간에 의해 가장 큰 제약을 받고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때, 가족생활의 질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연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근로자의 근무시간 단축문제, 취업주부의 이중부담을 해소해주기 위한 정책적 배려, 그리고 가족단위로 건전하게 즐길 수 있는 여가프로그램의 개발과 제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김문겸(1993), 여가의 사회학-한국의 레저문화, 서울;한울 아카데미.
- 2) 김외숙(1991), 도시 기혼여성의 여가활동참여와 여가장애,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3) 김외숙·이기영·최은숙(1992), 가족자원관리, 한국방송통신대학출판부.
- 4) 이기영·김외숙·구혜령(1995), 부부의 공유여가시간과 결혼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33(3), 113-126.
- 5) 이기영·김외숙·서창원·이승미(1994), 도시근로자가정 부부의 생활시간 구조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2(1), 31-46.
- 6) 이현아(1994), 남편의 생활시간구조와 가정생활문제에 관한 부부의 지각,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7) 장윤희(1991), 도시주부의 여가활동 동기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8) 한경미·황덕순(1990), 주부의 여가시간과 생활의 질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8(1), 69-82.
- 9) 한경미(1991), 취업주부의 시간사용과 영향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2), 171-190.
- 10) 홍성희(1991), 주부의 여가활동과 여가계약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11) 홍성희(1993), 주부의 가사노동 및 여가시간 배분에 관한 체계론적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2), 55-68.
- 12) 홍성희(1996), 주부의 가족여가활동 참여도와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4(2), 71-84.
- 13) Firestone, J. & Shelton, B.A.(1988), An estimation of the effects of women's work on available leisure time, Journal of Family Issues, 9(4), 478-495.
- 14) Gronau, R.(1976), The allocation of time of israeli wome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4(Pt.2), S201-220.
- 15) Hiatt, A.R., & Godwin, D.D.(1990), Use of time preferences for time allocation among urban, employed, married women, Lifestyle, 11(2), 161-182.
- 16) Hill, M.S., & Juster, F.T.(1980), Constraints and complementarities in time use, Working Paper Series, Survey Research Center, Ann Arbor, MI; University of Michigan.
- 17) Nickols, S.Y., & Abdel-Ghany, M(1983), Leisure time of husbands and wive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2(2), 189-198.
- 18) Robinson, J.P.(1977), How americans use time, New York;Prager Publisher.
- 19) 伊藤セツ 外(1989), 餘暇と自由時間, 伊藤セツ, 天野寛子 共著, 生活時間と生活 様式, 東京, 光生館.

<부록>

<표 6> 남편과 부인의 여가시간과 독립변인과의 상관관계(평균)

변 인	부인의 여가	남편의 여가	부인의 수입노동	남편의 수입노동	부인의 가사노동	남편의 가사노동	부인의 연령	남편의 연령	부인의 교육수준	남편의 교육수준	부인의 연령	남편의 연령	부인의 소득	남편의 소득
부인의 여가시간	1.0000													
남편의 여가시간	.2011	1.000												
부인의 수입노동시간	-.5140**	-.0135	1.000											
남편의 수입노동시간	-.1391	-.7156**	.1126	1.0000										
부인의 가사노동시간	.0042	-.1399	-.6508**	.1244	1.0000									
남편의 가사노동시간	.1349	-.0610	.0714	-.2737*	-.1110	1.000								
부인의 연령	.0859	.3099*	-.0356	-.1443	.0742	-.2307	1.000							
남편의 연령	.0846	.2901*	-.0232	-.1481	.0536	-.2279	.9564**	1.000						
부인의 교육수준	.0051	-.0454	-.0975	.0222	.2230	-.0394	-.1052	-.1321	1.000					
남편의 교육수준	-.1892	.0514	-.0212	-.0393	.1599	.1293	-.0629	-.0718	.6252**	1.000				
막내자녀의 연령	.0578	.2743*	.0797	-.1622	-.0528	-.1926	.8899**	.88720**	.2997*	-.2427	1.000			
부인의 소득	-.0203	.2202	.1320	-.1243	-.1440	.0519	.3335*	.3323*	.3170*	.2492	.2085	1.000		
남편의 소득	.0558	.2232	-.0434	-.0720	.0110	.0594	.2520	.2532	.3484**	.4383**	.1193	.5120**	1.000	

<표 7> 남편과 부인의 여가시간과 독립변인과의 상관관계(일요일)

변 인	부인의 여가	남편의 여가	부인의 가사노동	남편의 가사노동	부인의 연령	남편의 연령	부인의 교육수준	남편의 교육수준	막내자녀 연령	부인의 소득	남편의 소득
부인의 여가시간	1.0000										
남편의 여가시간	.4193**	1.000									
부인의 가사노동시간	-.5837**	-.2743*	1.000								
남편의 가사노동시간	-.4136**	-.7329**	.2926*	1.0000							
부인의 연령	-.0436	-.1577	-.1367	.1935	1.0000						
남편의 연령	.0302	.0870	-.0567	-.1774	.4984**	1.000					
부인의 교육수준	.3951**	.4157**	-.0393	-.5649**	-.1160	.0934	1.000				
남편의 교육수준	.2884*	.4005**	.0471	-.5930**	-.1476	.4689**	.7538**	1.000			
막내자녀의 연령	-.2020	-.3880**	.1098	.4687**	.8186**	.4014**	-.4601**	-.4050**	1.000		
부인의 소득	.2557	.2205	-.1636	-.1339	-.0415	.0769	.2055	.1093	-.0960	1.000	
남편의 소득	.3752**	.3567**	-.2052	-.3708**	-.1389	.0499	.3807**	.3526**	-.2877*	.5181**	1.000